

목포시, 내년 국비 확보 ‘발로 뛰는 행정’ 박차

새뜰마을사업·해양레저센터 건립 등 신규사업 27개 발굴

공모사업 적극 대응...정부 부처·국회 방문 등 체계적 추진

목포시가 ‘발로 뛰는 행정’을 통해 2017년 국비 확보에 박차를 가한다.

목포시는 1월 들어 내년도 국비확보를 위한 신규 사업 발굴 보고회를 개최한 데 이어 신규 사업 발굴 및 대상사업 전수조사를 했다.

시는 2017년도 국비확보를 위해 효율적이고 전략적인 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중앙정부에서 시행하는 응모사업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각 부처에서 예산안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하는 시기가 6월 초라는 점을 감안해 20대 총선이 끝나는 대로 예산편성 순기에 맞춰 각 부처와 기획재정부 및 국회 방문에 나서는 등 체계적이고 전방위적인 발로 뛰는 행정을 펼칠 계획이다.

지난 31일 목포시에 따르면 2017년 신규

사업으로 국민안전처 소관 1개, 문화체육관광부 3개, 환경부 4개, 여성가족부 1개, 국토교통부 10개, 해양수산부 6개, 산림청 2개 등 총 27개 사업을 발굴했다.

신규로 발굴된 사업 가운데 ▲도시 취약지 개선 ‘새뜰 마을’ 사업 ▲도립 해양레저센터 건립 ▲기차길 옆 늘 푸른 공동체 가꾸기 ▲도시활력 찾기 어울마당 프로젝트 ▲목재 문화체험장 조성 ▲항해 교류 역사관 건립 ▲고 김대중 대통령 집터 복원 등은 이색적이면서 반영 가능성이 큰 사업으로 분석되고 있다.

‘새뜰 마을’ 사업은 지역발전위원회 공모사업으로 동명동 77계단 일원 취약지역 구조 개선 사업이다. 시는 1회 추경에 관련 예산을 확보해 오는 5월 중 기본계획 용역을 실시할 계획이다.

갯바위~평화광장 수역에 건립될 ‘도립 해양레저센터’는 국제 파워보트 대회와 다도해 국제 요트대회 등을 매년 개최하고 있으나 기반시설이 취약해 새로운 해양레저 관광산업 활성화와 기반 구축을 위한 사업이다.

총 사업비 100억 가운데 우선 기본 및 시설설계비 5억원이 정부예산으로 확정되도록 끝까지 모든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기차길 옆 늘 푸른 공동체 가꾸기’사업은 철도 폐선부지에 웰빙 공원이 들어서 지역민들로부터 각광을 받고 있으나 여전히 기초 생활시설이 빈약해 슬럼화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데 따른 기반시설 정비 및 정주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시설설계비 등 15억원 확보에 나선다.

또 평화광장 일원은 하당 신도심의 친수 공간으로 각광을 받고 있지만 교통서비스가 낮고 경관적 가치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어 ‘어울마당 프로젝트’를 통해 친수공간으로 재창조해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 핵심이다. 실시설계에 필요한 사업비 10억원 반영을 건의하기로 했다.

특히 시는 목포를 상징하는 유달산 일원 7.5ha에 목재 문화체험장을 조성할 계획으로 총 사업비 30억원 가운데 용역비 2억원 반영을 위해 총력전에 나선다.

고 김대중 대통령의 유년 시절 집터인 만호동 2-4번지 일대 3필지 250㎡에는 기념 조형물 설치와 편의시설 등 소공원 조성 사업을 추진한다. 필요한 사업비는 총 6억원 중 내년도 국비에 2억5000만원이 반영될 수 있도록 설득노력을 개발하는 등 철저한 대응전략 모색에 나설 방침이다.

박홍률 목포시장은 “열악한 재정여건 속에서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국비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올해도 발로 뛰는 행정을 펼쳐 최소한의 재정 부담으로 최대의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목포=임영춘기자 lyc@kwangju.co.kr



목포 북항 하수처리장 내 ‘벨트프레스 탈수기’. 가동된 지 13년이 지나 고장이 잦은데다가 벨트로 압축해 처리하기 때문에 약취도 심각한 상태다.

노후 정수장·하수처리장 대대적 정비

맑은 물 공급 위해 196억 투입 시설 교체 등 추진

목포시가 맑은 물공급과 수질오염 예방을 위해 노후화된 정수장과 하수처리장에 대한 대대적인 시설정비에 나선다.

지난 31일 목포시에 따르면 관내 각종 상하수도 시설이 노후화돼 총 사업비 196억원을 투입해 북항 하수처리장과 남항 하수처리장을 비롯한 몽탄 정수장의 시설 정비 사업을 추진한다.

준공된 지 12년이 경과된 북항 하수처리장은 시설의 노후화로 잦은 고장과 효율성도 저하돼 관리비와 동력비 등이 해마다 증가하는 등 시설물 교체가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상하수도사업단은 벨트프레스 탈수기, 조목제진기, 침사인양기, 세목제진기 등 노후화된 기계 시설물을 오는 2019년까지 연차적으로 교체하기로 했다. 특히 벨트프레스 탈수기는 가동된 지 13년이 넘어서면서 잦은 고장과 심각한 약취 등이 발생함에 따라 약취가 나지 않는 원심탈수기로 교체할 계획이다. 시설교체에 따른 총 사업비는 50억원에 이른다.

또 북항 하수처리장은 질소·인 등 영

양염류의 고도처리를 위해 총 사업비 106억원이 투입되는 고도처리 시설 설치 사업을 추진 중으로, 현재 지하 구조물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다. 이는 방류수 수질 기준을 준수하고 공공수역 수질 오염 예방을 위한 사업이다.

남해 하수처리장도 준공 후 20년이 지난 노후화가 심각한 실정으로 환경정호로부터 3차레나 개선명령을 받는 등 수질 보전의 심각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다. 하지만 재정이 열악한 상황에서 지방비 확보도 쉽지 않아 지난해에는 개선명령 불이행으로 환경청으로부터 고발 조치까지 당했다. 상하수도사업단은 총 사업비 120억원(국비 50%, 지방비 50%) 가운데 우선 침사인양기, 송풍기, 산기관, 드럼 스크린 교체 등에 필요한 국비 11억원의 지원을 요청할 계획이다.

김찬익 목포시 상하수도사업단장은 “재정이 열악한 자치단체만으로는 정수장이나 하수처리장의 시설정비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많다”면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국비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목포=고규석기자 yousou@

산정동 성당 등 성지 순례 관광상품 개발

목포시가 체류형 관광객 유치를 위해 종교관련 역사자원을 발굴·활용한 관광 상품을 개발, 본격적인 관광객 유치에 나섰다.

지난 31일 목포시에 따르면 목포시 관내에 산재된 종교관련 유적지를 활용한 순례형 관광상품을 개발해 인근 지역과 연계시켜 목포시에서 1박을 유두하는 실속 있는 상품 운영에 들어간다.

이번에 개발된 ‘남도 성지순례 관광 상품’은 서울 출발→영광 기독교 성지 견학→목포시 양동교회→정명여고 구 선교사 사택→북교동 성당→산정동 성당→출주는 바다분수→주요 관광지(목포 1박)→증도 문준경 선교사→서울 도착 코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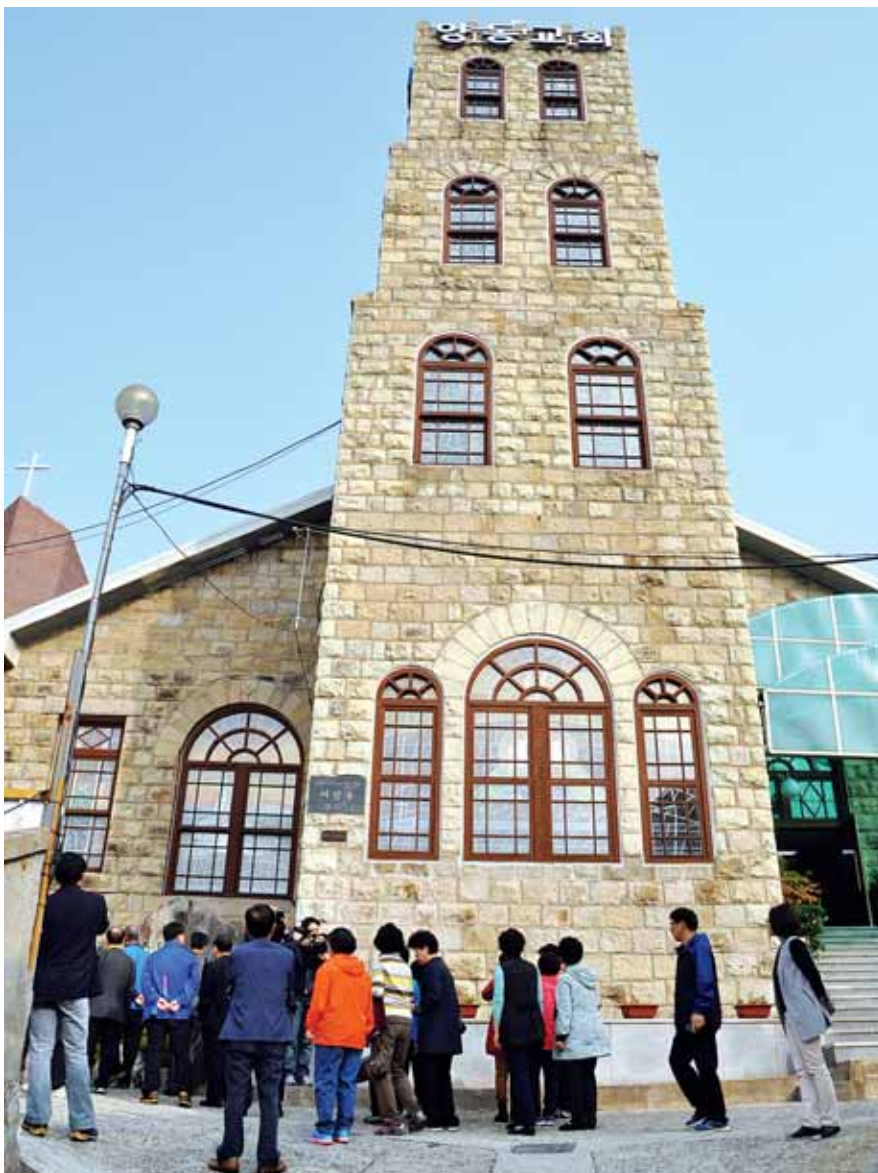
양동교회(등목문화재 제14호)는 1910년 건립된 호남지역 최초의 기독교 원산지로 양동에 있다. 또 정명여고 구 선교사 사택

(등목문화재 제62호)는 목포의 기독교 선교자인 유진벨(배유지) 선교사의 사택이다.

특히 가톨릭 신자들의 순례가 잇따르고 있는 산정동 성당은 국내 최초의 레지오 발상지로 유명하다. 지난해인 2015년에만 8200명이 이곳을 다녀갔다.

목포시는 지난 1월 전국 가톨릭 교구청과 기독교 총회를 대상으로 이를 집중 홍보한데 이어 이달 중에 목포-영광-신안 3개 지역 종교특화 상품개발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김문옥 목포시 관광경제국장은 “사업비 2000만원을 들여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고 홍보물을 제작했다”면서 “성지순례 전담 여행사를 선정해 협약을 체결한 이후 유치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도 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목포=고규석기자 yousou@



목포 관내에 산재된 종교관련 역사자원을 방문하는 순례객들이 늘면서 목포시가 이를 활용한 본격적인 관광 상품화에 나섰다. 사진은 목포시 양동교회.

조선 모임 ‘비파의정발전연구회’ 연구하는 의회 솔선수범

목포시의회 내 조선 모임인 ‘비파의정발전연구회’가 비회기를 이용해 실무교육을 받는 등 ‘연구하는 의회상’ 정립의 롤모델이 되고 있다.

비파의정발전연구회(연구회)는 지난 27일 목포시의회 운영위원실에서 양승주 목포대 행정학과 교수를 초빙해 ‘목포시의회 기능과 역할’에 대해 2시간 동안 강의를 들었다. 이날 참석한 6명의 조선의원들은 자질 함양과 역량 강화에 많은 도움이 됐다고 입을 모았다. 앞서 연구회는 지난

달 말에도 ‘목포 원도심 쇄퇴실태와 재생방안’이라는 주제로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조준범 목포대 도시·지역개발학과 교수는 도시재생의 효과제고를 위해서는 목포 도시쇠퇴특성에 기초한 도시재생추진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김귀선 연구회장은 “의원 상호간의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시 발전을 위한 정책을 연구하고, 당면 현안사업에 대한 주민 여론 수렴과 대안모색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목포=임영춘기자 lyc@kwangju.co.kr

소촌동 모아드림아파트 | 온세계아파트 특별분양



교육, 교통, 생활편의까지

광주를 더 크게 누립니다!

41㎡ 53㎡ 80㎡ 104㎡

107㎡

소촌동 모아드림 아파트

온세계 아파트

- KTX 5분거리
- 광주시청 10분거리
- 나주혁신도시 20분거리
- 무안공항 원할
- 교육환경 우수 지역

어룡초, 중앙초, 정광중 · 고등학교, 광주여대, 호남대 근거리

가격은 500만원대

풍부한 임대수요

우수한 교육환경

선착순 동, 호수지정

문의

062 383-6400